

교육자의 삶 훌훌 벗고 '농촌에 살어리랏다'

은퇴 후 生을 말하다 <6>

<제2부> 인생 2막 여는 사람들

③ 마을 이장 된 전 교장선생님

교장·장학사 거쳐 광주교육정보원장 퇴직
장성 송산리서 꿈 꾸던 농촌생활 실현
공시지가 열람 등 모든 정보 주민과 공유
'마을 공유재산 등기' 해묵은 숙제 해결
모범 이장 선정...내일 일본으로 해외연수



기용위(68)·윤춘옥(65)씨 부부가 22일 장성군 북이면 송산리 집 마당에서 개와 함께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광주에서 40여년간 교편을 잡았던 기씨는 2015년 아내와 함께 귀촌했고, 지난해부터는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성=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기용위(68)씨는 장성군 북이면 송산리 이장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장으로 선출됐으니 올해로 2년차 이장이다. 2015년 귀촌하기 전까지 그는 교사·교육행정가로 근무했다. 광주에서 초등학교 교원, 교감, 교장을 지냈고 장학사도 지냈다. 퇴임하기 전 마지막 공직은 광주시교육정보원장. 부이사관(3급)쯤 되는 자리다.

2013년 퇴직 후 2015년 송산리에 터를 잡았다. 고향 마을은 장성 황룡면이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집터를 본 후 송산리 귀촌을 결심했다고 한다. '퇴직하면 농촌으로 가리다'고 틈만 나면 읍조리던 그였다. 아내 윤춘옥(65)씨와 장성한 두 아들도 귀촌을 결심한 가정의 결정을 지지했다.

3년간 농촌살이에 적응하며 농촌이 주는 여유와

기쁨을 만끽한 뒤 2017년 말 또 다른 결심을 했다. 마을 이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이다. 기씨는 "귀촌 생활이 너무 좋았고 마을 주민들은 더 좋았다. 은퇴하면 정해진 거 없이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왔는데, 생각이 바뀌더라. 더 늦기 전에 마을을 위해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며 이장 출마 배경을 밝혔다.

강릉 유씨 집성촌으로 40세대 규모인 마을에서 유씨가 아닌 성씨가 이장으로 뽑힌 것은 마을이 생겨난 이후 처음이었다. 주민들은 기씨가 3년간 보여 준 말과 행동, 그리고 이장이 되고자 하는 열정을 높이 샀다.

"항상 베풀려고 했어요. 내 것만 움켜쥐고, 이해에 민감해야 하지 않으려고 했구요. 집에 놀러 오시면 집에 있는 술과 음식을 나누고 특히 말을 조심

했지요. 혹여라도 무시하는 말을 해서 상처를 입어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난 시골일을 잘 모르니 배운다며 낮추고 들어갔고, 마을 일이라면 항상 내가 손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장이 바뀐 후 마을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장이 된 후 중점을 둔 것은 '정보 공유'였다.

면사무소에서 이장단 회의가 끝나면 곧장 마을로 달려와 마을 회의를 소집해 행정사항을 알렸다.

예방법집중 안내, 비료 지급, 무료 영화 상영, 공시지가 열람 등 주민들이 알면 보탬이 되는 사항인데도 이전에는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았던 점을 떠올려 되도록 모든 사항을 빠짐 없이, 쉽게 전달하려고 애썼다. 농촌에도 스마트폰이 충분히 보급된 이후여서 때로는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한다.

마을 공유재산(부동산)을 등기한 것도 그의 공적이라면 공적이다.

마을회관, 회관부지, 마을 공동 건조장 등 마을 공유재산은 그동안 개인 명의로 돼 있었으나 이전까지 누구도 공동명의로 등기하지 않았었다. 시간이 흐르면 소유관계 다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절차가 까다로웠기에 이전에는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장이 되고난 이후 마을을 위해 무엇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때,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의견을 갖추고 설득력 있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를 낮추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니 공무원들이 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베푸는 삶은 부창부수였다. 아내 윤씨는 명절이면 직접 토하(민물새우) 젓을 담가 이웃과 나눠

다. "광주에서 지낼때부터 토하젓을 담가 이웃과 나눠요. 시골에 와서도 토하젓을 예쁜 그릇에 담아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돌렸어요. 이웃과 나누고 사니깐 농촌 생활이 주는 기쁨, 푸근한 인심이 2배 3배로 되돌아왔습니다"

"이해 다툼하지 않고 베풀며 살겠다"는 그의 인생 2막이 주변에서 인정 받은 결과일까. 기씨는 모범 이장에 선정돼 오는 26일 일본으로 연수를 떠난다.

한편 기씨는 귀촌을 염두에 둔 도시인들에게 군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와 '면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군(郡)마다 정책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귀촌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와 면사무소라는 것이다.

/장성=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대 평생교육원 귀농·귀촌 교육

4~8월 주 6시간 재배·기계 조작법 등 이론·실습교육 병행...직장인도 가능

"귀농 주저지 선정, 농작물 재배요령은 물론 경운기·트랙터 조작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전남대 평생교육원과 전남도가 은퇴를 앞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25일까지 교육생 25명을 모집하며, 정원 미달시 추가 모집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5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생은 12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2019 도시민 귀농·귀촌 창업과정 교육생' 프로그램은 4월부터 8월까지 10주동안 이어진다. 주당 6시간 교육이다.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론 수업은 화요일 저녁 7시 전남대 농업실습교육원에서 열린다. 토요일엔 오전 9시부터 현장실습을 병행한다. 수강생은 교육기간을 12월까지 전남대 텃밭을 1인당 1.65㎡(0.5평)씩 실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채소 관리와 친환경 텃밭 이론과 과수원 터 선정 방법, 화목류 관리법과 육종법 이론, 신소득 과수 품목 등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양봉이나 재래닭 키우는 법도 다룬다. 농업용 굴삭기, 경운기 등 농기계 조작법도 알려준다. 상세 일정 및 수강신청은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sle.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남대 평생교육원 062-530-3873-3876, 530-3882.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가족이 동의하고 부부가 함께 할 생활 설계 먼저 다가가고 베풀어야 삶 즐겁고 정착 수월

■ 기용위씨가 전하는 '즐거운 은퇴'

내가 퇴직하기 전 은퇴후를 생각하게 있다면, 첫째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중 제일은 집사람으로 보았다. 주변에 은퇴한 분들을 보니 부인과 함께 하는 분들이 적었다. 가장 먼저 나를 인정하고 위안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같이 살고 있는 집사람이다. 먼저 그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난 퇴직하기 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해 놓고 다른 누구와의 약속도 모두 취소한 뒤 집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은퇴후 부부가 이렇게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난 2남을 두었는데 내가 은퇴하기 전 모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내 뜻대로 따라 주었다. 결혼을 앞두고 며느리에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까지 직장 다닐 생각을 말고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는데 며느리들도 내 뜻에 따

라 주었다. 우리는 손주 봐주는 일, 그런 일로는 무척 자유롭다. 우리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게 건강을 지켜가려 많이 노력한다.

매일 글씨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는 차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한다. 작가는 아니지만 그저 생각나는 대로 쓰면 글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나처럼 귀촌할 생각이 있다면 기술 한 가지라도 배워두는 게 좋겠다.

전거나 보일러를 다룰 줄 알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시골에선 고장나면 스스로 해결 할 수 없으니 서비스를 받는데 그런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비용뿐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마을 분들과 훨씬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귀촌하면 생활의 여유가 많다. 은퇴후는 내 삶을 관조하는 시간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골이 제 격이다. 나 같은 연금 생활자라면 농사에 수익을 낼 필요없이 주위분들과 다들 일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 좋다

시골 인심은 야박하지 않다. 내가 먼저 베풀고



고위 교육공무원을 지내다 은퇴 후 마을 이장으로 변신한 기용위(68)씨가 집에서 기르는 닭에게 모이를 주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나서면 반듯이 보답하려고 한다. 세상사가 그렇다. 문화생활도 시골에서 즐길 수 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면마다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문예회관이 있어 매달 다양한 공연이 있으며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시골병원에도 그런대로 병원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응급 상황시 도시까지

나가는 데도 그리 시간 걸리지 않는다.

퇴직 후는 새로운 세상. 직장은 세상이라면 퇴직은 세상 밖으로 나온 것과 같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새로운 흥미가 되기도 한다. 내가 그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과거의 나를 과감히 던져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각국 보험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험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험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